

영암 대표축제 한 곳서...왕인·한옥을 만나다

‘영암 왕인문화축제’와 ‘제4회 대한민국 한옥건축 박람회’가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영암군 군서면 왕인박사 유적지 일원에서 열린다. 영암을 대표하는 축제와 박람회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기는 처음이다. 영암군은 ‘왕인과 한옥의 조화로움’을 바탕으로 군민과 관광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두 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경제성을 높여겠다는 전략이다.

영암 왕인문화축제

뮤지컬레이드 등 다채

◇왕인의 빛과 영암의 기(氣) 하나로 = 영암군은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왕인문화 축제의 48개 프로그램 내용을 예년보다 더욱 알차게 꾸렸다.

‘왕인의 빛, 소통과 상생의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한·일의 후손들이 개막식전 봉행하는 ‘왕인박사 춘향대제’와 ‘제1회 전국 천자문 성독대회’ 등 일본 아스카문화의 비조(鼻祖)이자 ‘학성(學聖)’으로 추앙받는 왕인의 역사성에 ‘불꽃을 이용한 화전놀이’와 ‘왕인스토리 스마트댄스’ 등 오락성을 가미했다.

가장 대표적인 행사는 11일과 12일 오후 2시 봉선대~상대포 역사공원 구간에서 진행되는 ‘왕인박사 일본가요, 뮤지컬레이드’(music+parade)이다. 왕인박사 행적 중 가장 상징적인 도일(渡日)의 역사를 군민 1000여명이 재연한다. 왕인박사 부부 등 백제시대 의상을 착용한 행렬과 도선곡사, 영암군 캐리타인 ‘기찬이’와 ‘기순이’ 등 10여 개의 캐릭터가 등장한다.

또한 9일 밤 9~10시 왕인박사유적지 핵심건물인 영월관 건물 외벽에 왕인을 테마로 한 미디어아트 작품 ‘왕인 미디어



‘2015 영암 왕인문화축제’와 ‘제4회 대한민국 한옥건축 박람회’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영암군 군서면 왕인박사 유적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왕인박사가 도일(渡日)하는 모습을 재연하는 ‘왕인박사 일본가요’ 퍼레이드 모습.

파사드 쇼’를 선보인다. 관광객 1000명이 참여하는 ‘천인벽화 프로젝트’와 ‘기찬전통 놀이마당’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은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벚꽃길 걸으며 힐링 = 자연스럽게 축제의 무대도 더욱 넓어졌다. ‘지의 고장 영암’의 브랜드에 걸맞게 50여 종의 프로그램

을 ▲기찬난장 ▲기찬칠품 ▲기찬놀이 ▲기찬투어 ▲기찬랜드 등으로 크게 나누고, 축제 공간을 월출산 전역으로 확대했다. 12일 오전 10시부터 봉선대~상대포 구간에서 상춘객들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도모하는 ‘구림꽃길 힐링 걷기대회’가 열린다. 특히 영암 고유의 민속놀이도 선보인다. 신복면 ‘갈곡 들소리’와 시종면 신חק리

정동마을 ‘정동정호제’(9일)와 신복면 월평리 ‘여석산성페스티벌’(10일), 삼호면 ‘삼호 강강술래’(11일), 도포면 ‘도포제줄다리기’(12일)가 차례로 공연된다. 12일 오후 4시 30분 봉선대 주무대에서 열리는 폐막식은 관내 예술인과 초대가수의 축하공연과 화려한 불꽃 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영암=문병선·대성수기자 moon@

‘왕인문화축제’·‘한옥건축 박람회’ 동시 개최

9~12일 군서면 왕인박사 유적지 일원

한옥건축박람회

전국 한옥기능대회 열려

전남도와 영암군이 공동 주최하고 한옥건축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가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이번 박람회는 ‘한옥, 그 오래된 미래’를 주제로 새로운 한옥 주거문화의 지평 확대를 위해 한옥 거주 희망자에게 구체적인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람회 주제관은 한옥에 대한 현실적 이해와 한옥이 주는 실제적 효과, 한옥에 의한 긍정적 체험 등을 주요 섹터로 설정했으며, 한옥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현대 한옥건축, 한옥공모전 수상작, 한옥 정원, 규방공예, 한옥 오브제, 한옥 신기술 등이 전시된다. 한옥건축 자재관에서는 한옥 건축과 관련한 목재·자재 전시와 상담을, 인테리어관에서는 가구 휴먼테이



한옥건축 박람회장을 찾아 한옥 축소 모형을 살펴보고 있는 한옥 애호가들.

와 육식 및 주방, 전원주택, 스마트홈 및 홈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국에서 활동중인 한옥 관련 기능인들이 기량을 겨루는 ‘전국 한옥기능 경기대회’는 전국 우수 기능인 200여 명이 참가

해 대목과 소목, 지붕 등 7개 직종에 대해 기량을 겨룸으로써 전문가와 일반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다.

이와 함께 한옥의 새로운 가치 창출 방법을 발표하고, 특히 한옥 온돌에 대한 전

문적인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신(新) 한옥과 온돌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도 개최된다.

체험행사로는 흙집 짓기 체험, 한옥 목구조 체험, 직접 흙을 반죽해 보고 구들 아궁이에 불을 지펴보는 구들 짓기와 구들 체험 등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전통 구들과 현대 구들의 차이를 직접 느껴보고, 구들 전시를 통해 여러 방식의 작동 원리를 관찰하도록 다양한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나주 빚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 100여 명의 팸투어단을 구성, 1박2일 코스로 도내 유명 행복마을, 한옥건축박람회장 등을 견학하도록 준비중이다.

전담업 조직위원장은 “일반 관람객은 물론 전원생활을 꿈꾸는 잠재적 수요자, 젊은 층과 어린이를 포함한 미래 한옥세대, 한옥건축 관계자들까지 만족하는 박람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

드림스타트 복지부장관 표창

영암군 드림스타트가 2014년도 드림스타트사업 전국 점검결과 상위 20%인 ‘가’등급으로 평가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받게 됐다.

이번 점검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점검단, 현장점검단으로 구성된 드림스타트 점검위원회에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대도시 기초단체 16개 기관과 농·산·어촌 기초단체 74개 기관 등 총 9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은 2014년도 드림스타트의 기본 구성을 비롯해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 운영, 자원개발 및 연계, 만족도, 홍보 등 6개분야 총 31개 지표에 대해 현장점검과 사례점검, 실적점검 등 종합적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1년 3월 드림스타트 신규사

업 지역으로 선정된 영암군은 삼호읍을 중심으로 300명의 아동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삼호읍, 학산면, 미암면 등 3개 읍·면지역으로 확대시행했다. 이어 2014년에는 영암군 전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0~12세 취약계층 아동 500여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등 아동통합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드림스타트사업 전 지역 확대 시행 및 사무실 추가 개소, 수행인력 확충과 고충안정 사기진작을 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등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높은 관심도와 대상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와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기초학습지원, 사회정서 증진서비스, 부모 양육지원 등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과 관리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영암=문병선기자 moon@

가야금산조 기념관 무료 체험교실

기초 연주·민요·현대곡 수업

영암군은 기찬랜드내 가야금산조 기념관에서 지역주민과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내고장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연계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군은 가야금산조 테마공원을 연중 12월 가야금소리가 울리고 관광객과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가야금산조 기념관은 우수한 역사를 지닌 가야금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갖가지 가야금관련 유품과 자료를 전시한 국내 유일의 기념관”이라며 “이번 가야금 체험교실을 통해 청소년들과 주민들이 지역문화를 바로 알고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영암군 문화홍보 대사가 돼 널리 홍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전국 가야금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야금산조 후계자 연수프로그램’과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고장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연계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군은 가야금산조 테마공원에 연중 12월 가야금소리가 울리고 관광객과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가야금산조 기념관은 우수한 역사를 지닌 가야금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갖가지 가야금관련 유품과 자료를 전시한 국내 유일의 기념관”이라며 “이번 가야금 체험교실을 통해 청소년들과 주민들이 지역문화를 바로 알고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영암군 문화홍보 대사가 돼 널리 홍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농업용 유용미생물 4종 공급

농가당 주 20ℓ...매주 2차례

영암군이 우수 농산물 생산과 친환경 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자체 생산한 농업용 유용미생물을 공급한다.

영암군에서 공급되는 유용미생물은 4종으로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 4종이다. 이를 활용하면 토양개량과 병충해 예방, 사료효율 증대, 축산 환경개선에 효과가 있어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산물 생산은 물론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용미생물 공급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하고 있다. 많은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농가당 주 20ℓ씩 공급하고 있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미생물은 자연 생태계의 생산자·소비자·분해자 중 분해자라는 한 축(軸)을 담당한다. 미생물이 없으면 생태계 자체를 이룰 수 없다”면서 “유용미생물 공급사업은 농가 경영비 절감은 물론 고품질 농산물 생산 등으로 영암군 농산물 명품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예향’은 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문화예술투매기입니다.

지방지사 (061)		시내지국	
광 산 062)944-0444	남 원 시 063)626-1601	광 천 366-8375	
군 산 시 063)467-2500	순 창 군 063)653-0444	남 광 222-9440	
정읍 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남 부 652-0175	
		동 광 264-2012	
		동 명 222-9054	
		동 부 225-6001	
		문 흥 267-4748	
		백 운 673-4698	
		봉 선 675-6530	
		북광주 525-3761	
		상 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 하 676-6805	
		신 안 512-1732	
		양 산 571-7658	
		오 치 266-7601	
		웅 부 522-7752	
		우 선 512-8116	
		윤 천 371-9818	
		팔 곡 961-2339	
		중 앙 222-1896	
		중 흥 224-6804	
		진 월 673-1600	
		침 단 973-2900	
		장 평 224-8212	
		치 평 376-6511	
		풍 암 682-8112	
		하 남 959-1500	
		화 정 375-9662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